

# 위례역사공원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 촉구 결의안

(박기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01
----------	------

발의연월일: 2024년 9월 일  
발 의 자: 박기범, 김윤환, 서희경, 민영미,  
박명순, 조정식, 구재평, 정용한,  
이준배, 성해련 (이상 10명)

## □ 제안이유

- 위례역사공원은 현재 역사적 자료와 유물이 부족해 주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불명확함. 이에 따라 주민들은 위례역사공원의 용도를 ‘주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것과, 이에 맞춰 공원 명칭을 ‘위례수변근린공원’으로, 8월 고시된 위례선 트램 역명을 ‘위례수변공원 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의 용도와 공원 명칭 및 위례선 트램 역명을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사회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개선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함.

## □ 주요내용

-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위례역사공원의 용도를 주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원 명칭 및 지난 8월 고시된 위례선 트램 역명을 정하기를 촉구함.
-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창한 나무 조성 및 편의 시설 조성 등 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 결의문(안) : 별도 불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교통공사, 성남시, 서울시

○ 불 임 : 위례역사공원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 촉구 결의안 1부.

# 위례역사공원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위례역사공원을 주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79-2번지 일원에 위치한 위례역사공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원으로, 백제의 역사를 테마로 한 주제공원이다.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휴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공원이지만, 현재의 위례역사공원은 역사적 자료와 유물이 매우 빈약하여 그 설치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부터 위례역사공원을 주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의 용도 변경을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현재의 공원 명칭인 ‘위례역사공원’과 지난 8월 고시된 위례선 트램 역명인 ‘위례역사공원 역’을 각각 ‘위례수변근린공원’과 ‘위례수변공원 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례역사공원은 조성된 지 7~8년이 경과하여 성남시는 현재 공원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열람공고 및 고시를 거쳐 역사문화공원의 조형물 등을 제거하고, 주민들이 요청한 공원 숲을 조성하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위례역사공원의 성격을 주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원 숲,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등 주민들이 원하는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은 주제공원 보다는 근린공원이 더 적합하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위례역사공원을 주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하고, 이에 맞춰 공원 명칭 및 위례선 트램 역명을 변경하기를 성남시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위례역사공원의 용도를 주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원 명칭과 위례선 트램 역명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창한 나무 조성 및 편의 시설 조성 등 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일

성남시의회